

특별메세지 - 시대와 선교, 그리고 제자

1. 계절에 대한 이해

[다니엘 2: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He changes times and seasons; he sets up kings and deposes them. He gives wisdom to the wise and knowledge to the discerning.

*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계절을 바꾸시는 분 - 내 힘의 한계를 아는 것 - '거룩한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다 -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되는 삶

하나님의 시간은 '계절'로 표현 되어 있다. 계절마다의 특성이 있다. 계절을 안다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순응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흘러가는 법을 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원리와 법칙을 아는 사람이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지혜'라 말할 수 있다.

지혜는 눈이 떠진 상태를 말한다.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상태이다. 다른 차원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한다. 총명은 '이해하는 힘'이다. 이해는 영어번역처럼 구분(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혜가 '총론'이라면, '총명'은 각론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이는 것이다.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총명이다. 그래서 총명한 자에게 '지식(보편 타당한 설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시대 필요한 것은, 다니엘이 언급한 '지혜와 총명'이다.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하늘의 뜻(시간과 계절)에 나의 뜻(나의 시간과 계절)을 정렬시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셨다.

오늘 나의 계절은 하나님의 계절과 함께 정렬되어 있는가?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계절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있다.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고있다.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어긋난다.

2. 열방의 계절 - 추수

[마가복음 4:26-29]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씨가 땅에 뿌려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르익어 갈 때가 언제인가? 뿌려진 씨앗(복음)이 열매로 익어 낫을 대는 때이다. 그 때가 추수이다.

지금 열방은 어떤 계절인가? 이스라엘 (중동)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열방으로 뻗어나가 열매를 맺었고, 다시 중동으로 들어가 열매가 무르익어 가고있다. 중동은 열방의 시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곳이 중동지역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중동이며, 그 마지막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다.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난민이 되어버린 아랍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이슬람 종교권 안에있는 무슬림들'이다. 지금이 열방이 어떤 계절인지 이해해야 한다. 시대를 이해해야 한다. 이 시대의 명령에 정렬되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지금은 추수이며 가을이다.

3. 한 사람의 법칙

[로마서 5: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과 일하신다. 한 사람이 집단에 영향을 주도록 하신다. 로마서를 보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 놀라운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의 법칙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게이트로 사용하신다.

4. 열방에 대한 '한 사람의 법칙' - 제자

그렇다면 엄청난 규모의 열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열방과 민족 단위를 어떻게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답이 있다. 땅이 아닌 '하늘의 능력'을 가진 제자 한 명이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제자'의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제자의 수준은 사실 성경에 언급된 '무리와 군중'과 똑같다. 무리와 군중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들도 예수님을 보았다. 그런데 무리와 군중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 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구경꾼과 다르다. 보고 감탄하는 사람과 다르다.

5. 조이풀의 10년 비전 - 열방을 이해하는 제자 한 명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계절과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정렬시키는 제자 한 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군중과 무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제자수준의 성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전 세계 부흥을 가져왔던 영국의 에반 로버츠 한 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한 명이면 된다.

6. 자연의 계절은 바꿀 수 없지만 영적인 계절은 변화시킬 수 있다.

영적인 계절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 심판이 언도 되었던 니스웨가 요나 한 사람의 선포로 부흥의 계절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계절을 여는 힘을 주셨다. 이제 반응하자. 우리 조이풀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거두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누가복음 10:2-3]

2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청하여라

3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야 한다."